‘솔기 없는 옷’ 한 벌 지어 당신께 바치고 싶어라

열두 살 ‘현대불교’가 스님께 띄우는 편지

스님,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푸르고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단풍의 행렬은 만물의 본체를 드러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단풍을 열두 번 째 맞이하는 제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 무엇을 논하고 무엇을 주장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과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를 얼마나 견지했는지 돌이켜 봅니다. 하고 싶은 일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많아 늘 고뇌했지만 막상 큰일은 제대로 하지 못한 듯 하여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열두 살 생일 날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님, 지금 입고 계신 옷은 얼마짜리입니까? 아, 돈으로 따지는 값이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하여 그 사람이 더 귀해지는 것이 아닌 줄이야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지요. 날마다 가식의 옷을 껴입으며 사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 ‘명품’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옷’을 입으신 스님, 그 옷의 진정한 값을 가르쳐 주시면 세간 사람들의 ‘명품 병’이 치유되지 않을까요? 가식의 옷을 한 겹씩 벗으며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올해로 꼭 100세를 맞은 김필례(대전시 중구 원동) 보살님은 매일, 일흔 여섯 살 따님이 운영하는 승복점에 나가 하루 종일 승복 바느질을 합니다. 바늘에 실을 직접 꿰고 소침으로 한 땀 한 땀 떠 나가는 모습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지요. 어느 날 그 보살님 바느질 하시는 것을 한참 구경했습니다. 처음엔 100세의 보살님이 승복 바느질을 하신다기에 신기한 마음으로 찾아 갔지만 곁에 앉아 있는 동안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후 무슨 물건이 필요하십니까?”라고 묻는 왕에게 혜충국사(?~775)는 “무봉탑(無縫塔)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다지요? 쌓은 흔적과 이음새가 없는 무봉탑이 세상에 있다 한들 그 형상을 볼 눈이 없으면 어찌 그것이 귀한 줄 알겠습니까. 100세의 김필례 보살님도 스님들의 법의를 지으며 ‘내가 지은 이 옷을 입은 스님이 부디 성불하여 중생제도 하시길…’ 하는 마음뿐이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솔기 없는 옷 한 벌 지어 천하의 중생을 제도할 스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은 승복을 짓는 모든 이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스님, 지금 입고 계신 옷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도 ‘삼 서 근’으로 지은 동산(910~990) 스님의 옷은 청천벽력 같은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까? 제방의 운수들을 입히고도 넉넉하여 삼천대천세계를 덮고 있습니까? 부처를 ‘마른 똥 막대기’라고 하고 ‘장림산 밑에 있는 대나무 지팡이’라고 하던 옛 스님들의 견처는 지금도 여여하게 광채를 발하고 있는지요?

혹 빛나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빛이 깊은 산이나 바다 속으로 숨어 버리진 않았는지요? 자태가 고운 아씨 때의 바느질 솜씨를 아끼고 아껴 두었다가 승복 짓는 일로 세상을 마치고자 30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바느질을 한다는 노(老)보살님. 그 정성이라면 옛 스승들의 견처에 솔기 없는 법복 한 벌 공양 올릴 만 하지 않을까요?

스님,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제가 후일 인적이 끊어진 곳에 암자를 세우고 한 톨의 쌀도 저축하지 않고 한 포기 채소도 심지 않고 항상 시방에 왕래하는 대선지식을 맞이하여 그들에게 본래면목을 얽어매는 못과 문설주를 모조리 뽑아주고 기름때에 절은 모자와 노린내 나는 적삼을 훌훌 벗어버려 그들 모두가 그지없이 청정한 경지에서 할 일 없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던 동산 스님의 외침을….

스님, 입을 줄만 알고 벗을 줄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한 말씀 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식과 탐욕과 분노와 무지의 옷들을 훌훌 벗어 던지고 ‘무봉탑’과 ‘삼 서 근’의 휘황찬란한 깨우침을 입을 수 있도록….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글=임연태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지금 입고 계신 옷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승복 짓는 일로 세상을 마치고자 30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바느질 한다는 100세의 김필례 보살님. 그 정성이라면 옛 스승들의 견처에 솔기없는 법복 한 벌 공양 올릴 만 하지 않을까요? 스님, 입을 줄만 알고 벗을 줄은 모르는 사람들 향해 한 말씀 해 주세요. 가식과 탐욕, 분노와 어리석음의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무봉탑’과 ‘삼 서 근’의 깨우침을 입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현재 100세 나이에도 매일 승복 짓는 바느질 삼매에 드는 대전의 김필례 보살.

삼천리 방방곡곡 부처님 성지 찾아 국태민안(國泰民安) 발원하며

108산사 찾아 108배로 108번뇌 소멸하고
108염주 만들어 가는 인연공덕을 쌓으십시오

금강산 신계사에서 한라산 관음사까지
한반도 곳곳에 새로운 신행문화의 법등(法燈)이 밝혀집니다.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떠나는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가 성지순례 기도법회의 새장을 열어 갈 것입니다.
산사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 세월을 머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구조물, 가슴 뭉클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떠나는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는 108산사를 찾아 염불과 기도, 108참회, 축원, 신묘장구대다라니 사경, 발원문, 동참불자에 낙관, 해당 사찰 이름이 새겨진 염주알 보시 등을 봉행할 것입니다.

▶문의 및 접수 :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02-9000-193~4)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가 찾아 갈 108산사
●각원사 ●갑 사 ●개심사 ●겨조암 ●견봉사 ●경국사 ●고란사 ●고산사 ●고운사 ●관음사 ●관음암 ●관촉사 ●광덕사 ●구룡사 ●금당사 ●금산사 ●기림사 ●김룡사 ●낙산사 ●내소사 ●내원사 ●내장사 ●대승사 ●대전사 ●대흥사 ●도갑사 ●도리사 ●도선사 ●도안사 ●동학사 ●동화사 ●마곡사 ●무량사 ●무위사 ●문수암 ●백담사 ●백련사 ●백양사 ●범어사 ●법주사 ●법흥사 ●보경사 ●보광사 ●보덕사 ●보리암 ●보문사 ●봉녕사 ●봉선사 ●봉암사 ●봉은사 ●봉정사 ●봉정암 ●부석사 ●분황사 ●불국사 ●불암사 ●불영사 ●삼화사 ●상원사 ●석굴암 ●석남사 ●선본사 ●선운사 ●송광사 ●수덕사 ●수도사 ●신륵사 ●신원사 ●신흥사 ●심상사 ●쌍계사 ●안국사 ●연곡사 ●연주암 ●영국사 ●오어사 ●옥천사 ●완주 송광사 ●용덕사 ●용문사 ●용연사 ●용주사 ●운문사 ●운주사 ●월정사 ●은해사 ●자재암 ●장곡사 ●전등사 ●정암사 ●제주 관음사 ●조계사 ●직지사 ●천은사 ●청암사 ●청평사 ●칠장사 ●통도사 ●파계사 ●표충사 ●해운사 ●해인사 ●향일암 ●현등사 ●화계사 ●화엄사 ●흥국사 ●희방사

● 선묵 혜자(禪默 慧慈)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出刊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선묵 혜자 지음 _ 화남 펴냄 _ 정가 20,000원